

Part 4 — 국가 부채 급증 시대

우리는 어떻게 당했는가?

· 정리 2026-05-15

우리는 어떻게 당했는가?

Part 4-2강 금리 3기 분류 위에서, 본 회차는 2기 거대한 착각의 시대 (2022~2026) 를 정밀 해체. 4층 착각 + 3 메시지 + 4 유형 자기 확인 + 실질 금리 중력 1단계.

1980~2020 금리는 30분의 1 토막.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라 착각하던 시대였다. 2022~2026년 시장 금리는 좀처럼 안 내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옛 공식을 믿었다.

결과는 — TLT -30%, TMF 사실상 소멸, 60/40 -17.5% (200년 4번째 최악). 역사상 가장 비싼 착각의 수업료. 본 회차는 그 착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깨지는지 해체한다.

-17.5%

60/40 포트폴리오 2022 -17.5%, 지난 200년 4번째 최악 (+2). 1937년 이래 최악. 지난 40년 금리 하락에 베팅한 모든 자산 배분 공식이 깨졌다는 결정적 증거

{'text': '우리는 어떻게 당했는가? 4층 착각 — 어디서 깨졌고 어디는 여전히 진행 중인가?'}
}

1. 우리는 어떻게 당했는가

Part 4의 주제는 **거대한 착각의 시대 (2022~2026)**다. 이러한 착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1980~2020년 40년 동안 금리는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981년 15.5%에서 2020년 0.5%로 **30분의 1 토막**이 났다. 사람들이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2022~2026년 시장 금리는 좀처럼 안 내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파월 피벗 임박' / '채권이 기회' / '소프트랜딩 성공' / '올해 3회 인하 확실' / '골디락스 시대 온다' / '금리 인하 기대 고조' 같은 기대를 이어갔다.

결과는? **실제 대출 금리는 4.5%에서 7.2%로 올랐다**. 본 회차는 그 착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어떻게 깨지는지 — 4 층 + 3 메시지 + 4 자기 확인 + 진짜 비용 구조로 해체한다.

2. 40년 불패 공식 — 위기→인하→폭등

지난 42년간(1980~2022)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작동한 공식이 있다.

위기 발생 → 연준 금리 인하 → 자산 폭등

이 시기는 돈이 넘쳐나던 시대였다. 미국 정부도 자금을 많이 차입하지 않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저축률로 시중 돈이 풍부했다. 자금 빌리는 수요가 적어 은행원들이 '제발 돈 빌려주세요'라고 권유하던 시대였다. 1980~90년대엔 은행 문턱이 높았으나 2000년대부터 돈이 남아돌기 시작했고, 2010년대엔 돈을 많이 빌려주는 실적의 지점장이 승진하는 시대로 전환됐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만 내리면 모든 시장 금리가 함께 내렸다.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우리는 이 공식이 틀린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그것이 거대한 착각의 첫 번째 뿌리 — 우리는 한 번도 '40년 불패 공식이 깨진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채 2022년을 맞이했다.

공식 작동의 핵심은 **돈의 공급이 항상 충분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 부채는 2017년까지 240년 누적 \$20조에 불과했고, 베이비부머의 저축이 시중에 풍부했다. 자금 수요(차입자)가 적고 공급(저축)이 넘쳐나니 자금의 가격(금리)이 자연스럽게 하락 압박을 받았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항상 통한 이유는 시장이 그 인하를 환영했기 때문이지, 연준 자체의 권능 때문이 아니었다.

본 회차의 핵심 질문은 — **그 환경이 깨진 지금, 우리는 어떤 새 공식 위에서 살고 있는가?** 답을 4층 착각 구조로 해체한다. 첫 번째 층은 가장 표면적인 인식 오류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파월의 단언이었다.

3. 4 층 착각 구조

본 회차는 거대한 착각을 4 층 구조로 해체한다. 각 층은 독립적인 잘못된 가정이며, 어느 층에서 깨지느냐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진다.

1층 — 현실 인식: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2층 — 금리 경로:** '금리 올리면 곧 내릴 수밖에 없다'. **3층 — 작동 방식:** '기준금리 내리면 장기금리도 내린다'. **4층 — 통제권:** '연준은 여전히 시장을 통제한다'.

1·2·3층은 이미 깨졌고, 4층은 2026년 상반기까지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손실은 3층(기준금리=장기금리)에서 발생했다** — TLT/TMF/60-40의 1926년 이래 최악 성과. 다음 § 부터 1층씩 해체. 가장 먼저 파월의 '일시적' 단언이 어떻게 9%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는지 본다.

4 층 착각 구조

층	내용	상태
1층 현실 인식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깨짐 (인플레 9%)
2층 금리 경로	'곧 내릴 수밖에 없다'	깨짐 (2025~26 4% 유지)
3층 작동 방식	'기준금리=장기금리'	깨짐 (착각의 청구서)
4층 통제권	'연준은 여전히 왕'	진행 중

4. 1층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Transitory)'이라고 반복했다. 그러나 **2021~2022년 인플레이션은 9%까지 솟구쳤다**. 2021년 말 6% 상승 시점, 2022년 1월 가파른 상승 시점 모두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과는 명백히 틀렸고 본인도 인정했다.

왜 파월도 틀렸나? 연준이 사용하는 일반 균형 모델 같은 경제 모델은 정교한 수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그 모델은 일시적 공급망 충격이 곧 정상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됐다. 연준뿐 아니라 월가의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같은 모델을 썼기에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문제는 모델이 **구조적 변화를 외생 변수 또는 무시 가능한 잡음**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사태를 과거 모델로 분석하면 반드시 틀린다**. 이는 본 회차의 핵심 통찰 중 하나다 — 한 시대의 모델로 다음 시대를 분석하면 반드시 어긋난다.

9%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었다. 한 세대의 미국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 미국 마지막 9%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40년 만의 회귀였고, 연준의 모델은 그 회귀를 예측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 모델이 가정하던 '정상 세계'는 1980~2020년의 인위적 저금리 시대였고, 그 시대 자체가 끝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에서는 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는지 — 코로나가 만든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뜨린 3 가지 구조 변화(세계화 종료·현금 직접 살포·노동력 감소) — 를 본다. 본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다.

5. 왜 40년 만에 인플레 돌아왔나 3 이유

강사가 분석하는 인플레이션 회귀의 3 가지 구조 변화. ① **세계화가 끝났다** — 중국 공장이 전 세계 물가 억제하던 구조 → 탈세계화 → 공급 비용 상승.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중국 의존을 끊어야 한다 — 공급망 분리가 필수가 되면서 생산 단가 상승.

② **현금을 직접 뿌렸다** — 과거 QE는 자산만 ↑, 코로나엔 국민에게 직접 2,000달러씩 여러 차례 살포 → 실물 인플레. **미국 국가 부채가 2017년 \$20조 (건국 240년 누적) → 2026년 \$39조 (9년에 +\$19조)**. 2017년 전후 미국은 부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해 봐야 한다 — 부채가 약 2배로 늘었다.

③ **일할 사람이 줄었다** — 베이비붐 대거 은퇴 → 노동력 부족 → 임금 상승 → 서비스 물가. **코로나가 만든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뜨린 것이다** — 3 구조 변화가 코로나 이전부터 누적됐다.

인플레이션 회귀 3 이유

이유	내용	결과
① 세계화 종료	중국 의존 단절	공급 비용 ↑
② 현금 직접 살포	QE → 직접 \$2,000	실물 인플레
③ 노동력 감소	베이비붐 은퇴	임금 ↑ 서비스 물가

6. 2층 — 곧 내릴 수밖에 없다

지난 40년 동안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경제가 파탄 났던 경험으로 '분명히 금리를 곧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1·2층이 모두 깨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2025~2026년에도 시장 금리가 4%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현상이 이어졌다. Fed가 2024-09부터 기준금리를 1.75%p 인하했음에도 10년물 국채는 거꾸로 +60bp 상승. 강의 2주 후(2026-05-15) 4.49%로 임계 4.5% 근접.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국채를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 강사 진단 — 이는 **국채 매수 기관 투자자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며, 개인 직접 판매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기관 투자자가 줄어드는 흐름은 채권 시장 자체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1차 증거다. 정부가 '개인 직접 판매'로 메우는 흐름이 일상화되면, 다음 단계는 발행 자체의 부담 증가다 — Part 4-1강의 부채 J커브 골격이 본 회차의 § 개인 직접 판매와 연결되는 결이다.

'곧 내릴 수밖에 없다' 믿음의 본질은 과거 40년의 외삽이다. 1980~2022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금리는 결국 내렸다. 1994년 일시 상승도 곧 하락 추세로 복귀했다. 그 경험이 40년 누적됐기에 사람들의 뇌가 '결국 내린다'를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부채가 적고 저축이 많아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압박이 작동했다. 지금은 부채가 폭증하고 채권 매수자가 줄어드는 정반대 환경이다.

환경이 바뀌면 외삽이 깨진다. 2025~2026년 시장 금리가 4%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새 시대의 균형점이라는 게 본 §의 결이다.

7. 3층 — 착각의 청구서 (TLT·TMF·60/40)

이 착각으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10년물·3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갈 것이며, TLT는 안 사고 TMF(3배 레버리지)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확 정량 (+2) — **TLT 2022 -31.24%** (1986년 출시 이후 최악). **60/40 2022 -17.5%** (1937년 이래 최악, **지난 200년 4번째 최악**). **TMF 최대 낙폭 -92.61%** (사실상 소멸). 10년 누적 TLT -1.66% vs TMF -16.57%.

주가는 50%+ 오르는 동안 미국 장기채는 30% 빠졌다. 60/40 포트폴리오가 1926년 이래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 **지난 40년 금리 하락에 베팅한 모든 자산 배분 공식이 깨졌다는 결정적 증거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TMF는 가치가 사실상 소멸했다. 부총리도 30년물 국채 -40% 손실을 봤다 — **이게 '착각의 청구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착각의 수업료.

■ 착각의 청구서 정확 정량

자산	2022 손실	최대 낙폭
TLT	-31.24%	-48.35%
TMF	사실상 소멸	-92.61%
60/40	-17.5% (200년 4번째 최악)	1937년 이래 최악
S&P 500 (참조)	+50%+	(같은 시기 상승)

†2 TLT 2022 -31.24% + 60/40 -17.5% (200년 4번째 최악) morningstar.com

8. 4층 — 연준은 여전히 왕이다 (배우 vs 감독)

세 가지 착각이 깨졌음에도 2026년 상반기까지 네 번째 착각은 진행 중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만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파월 의장 발언을 문자 그대로 분석하는 유튜브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예측을 계속 틀렸음에도. 반면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 콘텐츠는 수천 조회.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배우를 감독으로 착각했다. 🎭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 파월 (배우). 🎬 무대 뒤 어둠 속 — 베센트 재무부 (진짜 감독). 파월 의장은 사실 감독이 아니다. 무대 위 배우다.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진짜 감독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다.

미국 국가 부채가 단 7년 만에 \$20조 → \$39조로 늘어났기에 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미국이 큰 위기에 직면한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연준 의장 임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강사는 이번에 목격했다고 짚는다. 파월 의장은 그래도 애드립과 주체성을 가졌던 배우였다면, 다음 연준 의장은 진짜 감독인 재무부 말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5월 파월 임기 종료** 후 재무부 영향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이 4층 착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 **시청자가 무대 위 배우의 표정만 보면서 진짜 결정 권한이 있는 감독을 못 보기 때문이다.** 파월 발언의 한 마디 한 마디를 해석하는 동안, 그 결정의 진짜 배경이 되는 재무부 공간(TGA·국채 발행 일정)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강사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고 짚는 결이 바로 이것이다. 다음 §에서는 연준 목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전도됐는지 정확히 본다.

9. 연준 목표 우선순위 전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국방비도, 복지도 즉시 영향. 그래서 연준은 '30년 뒤 미국 큰 문제 생긴다'는 부채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

새 연준 의장의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 — 어쨌든 배우 역할로 전략한다. 어떤 성향의 의장이 와도 부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우선순위 전도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대 자체의 골격 변화**다. 1·2기에는 '물가 안정'이 1순위였기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즉시 금리를 올렸다. 3기에는 'J커브 부채'가 1순위이기에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금리를 못 올린다 — 부채 이자 부담이 통화 정책의 자유도를 잠식한다. 이게 fiscal dominance(재정 지배)의 정확한 정의다.

■ 연준 목표 우선순위 전도

시대 3순위	1순위	2순위
과거 (~2022) —	물가 안정	고용
현재 (2026~) 고용	J커브 부채	물가 안정

10. 3강이 남기는 3 메시지

본 회차의 3 가지 결론적 통찰. ① **40년 관성이 우리의 뇌를 절여 놓았다** — 1980~2020 금리 하락이 40년간 이어지자 모든 사람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2022년부터 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뇌가 관성에 절여 있어 채권 가격 상승 착각에 빠진다.

② **자신감과 정확도는 무관하다** — '100% 확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다. 확성기 큰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채널을 선택하라.

③ **파월이 아니라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을 보라** — 재무부 공간이 어떻게 차고 비는지, 국채 발행이 언제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재정 지배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강사가 본 회차에서 세 번 강조한 시각 전환 권고이며, 다음 §의 4 유형 자기 확인표와 연결된다.

3강이 남기는 3 메시지

①

40년 관성

뇌가 관성에 절여져 채권 상승 착각

→

②

자신감 ≠ 정확도

다양한 채널 선택

→

③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

파월 발언이 아니라 재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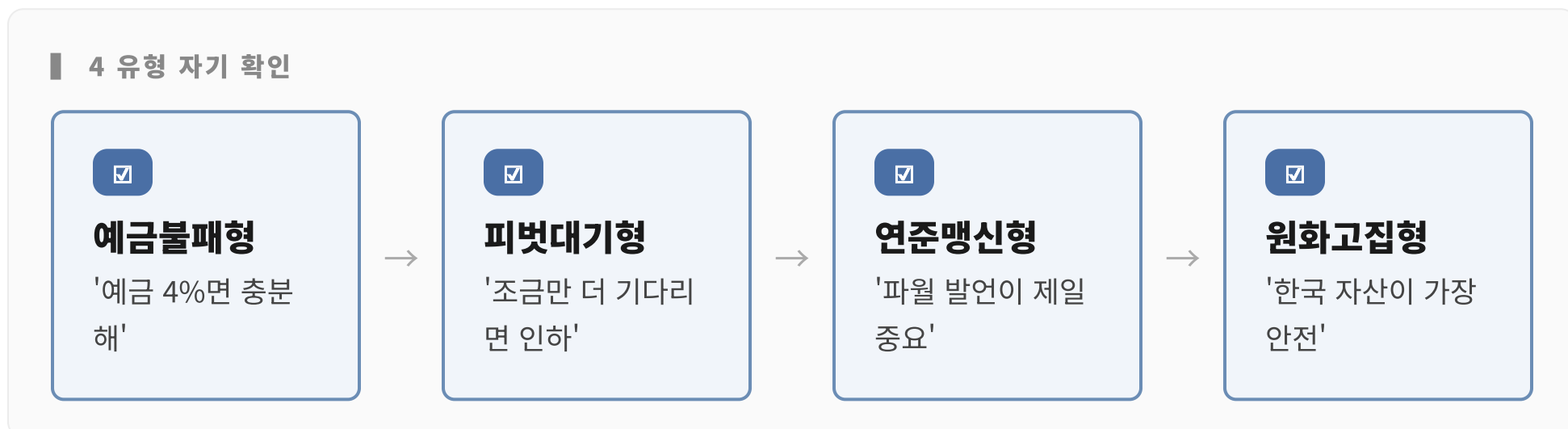
11. 4 유형 자기 확인

본 회차 마무리에 강사가 제시하는 자기 확인 표. 해당될수록 본 강의가 더 유익하다 — 강사 결.

예금불패형 — '예금 4%면 충분해'. 한국 원화 예금에 자산을 두고 '금리 2~3%인데 4%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적극적 자산 보호 방식이 아니다. 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한다 — 예금만 하는 방식은 승리 방식이 아니다.

피벗대기형 + 연준맹신형 — '조금만 기다리면 연준이 금리 인하' 또는 '파월 발언이 가장 중요' —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다음 연준 의장이 어떻게 시장을 이끌지에 대한 재정 지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원화고집형 — '한국 자산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은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반에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 강사 시점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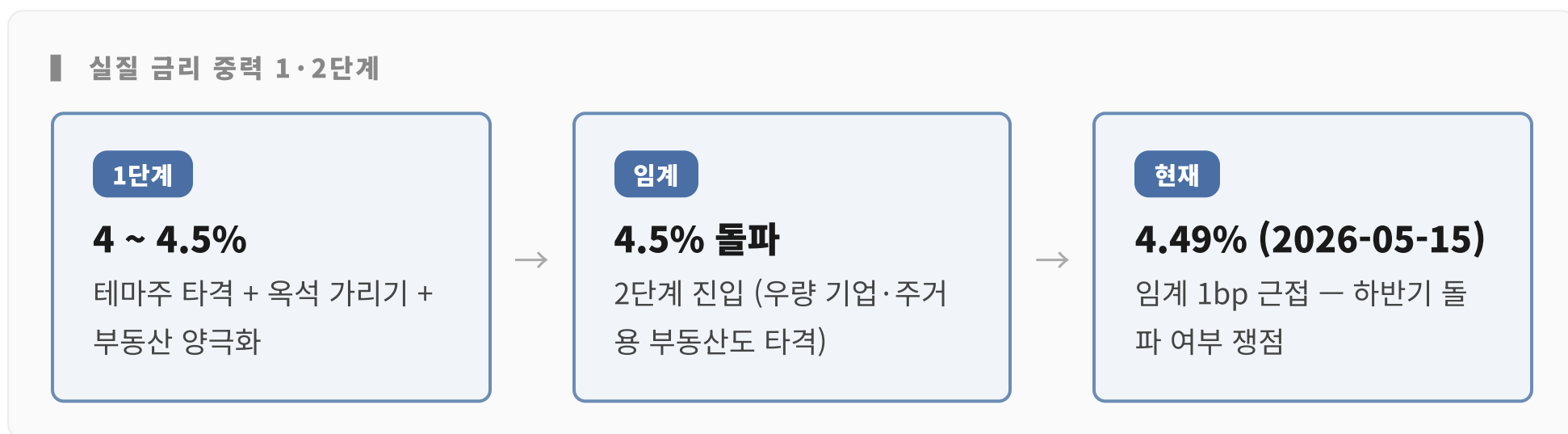
12. 실질 금리 중력 1단계 — 옥석 가리기

이미 우리는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쉽게 하락하지 않는 **중금리 시장**으로 변화했다. 금리 상승은 자산을 끌어내리는 중력이 강해지는 것과 같다.

1단계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 넘었지만 4.5% 돌파하지 않은 구간. 테마주는 상당히 빠르게 타격. 채권 시장은 이미 큰 타격. 주식 시장은 **옥석 가리기 시작** (수익 창출 기업은 4.3% 견딜, 부도율 ↑). 부동산 양극화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붕괴 조짐 / 주거용은 견고 (임대료 동반 상승).

2단계 진입 임계 —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면 우량 기업과 주거용 부동산도 즉각 타격. 올해 하반기에 4.5% 돌파 여부가 중요 쟁점 (+1). 강의 2주 후 4.49%로 임계 1bp 근접.

부동산 양극화의 정확 정량 (Q1 2026) — **오피스 CMBS 연체율 12.34% (사상 최고)** vs 멀티패밀리 0.5%. 250배 격차. 2026년 만기 도래 \$520B 중 \$52B at-risk. 임대료도 양극화 — 전국 +0.2% vs 샌프란시스코 +10%. 강사 명제(부동산 양극화 진행)가 정확 정량으로 검증 (+4).



+1 미국 10년물 4.49%, 4.5% 임계 근접 [federalreserve.gov](https://www.federalreserve.gov) +4 오피스 CMBS 12.34% 사상 최고 + 멀티패밀리 0.5% [mmgrea.com](https://www.mmgrea.com)

13. 엘런 5~11월 살포 + 11월 공간 채우기

2026년 말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엘런 재무부가 **5월부터 11월 사이에 엄청난 돈을 살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돈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한다.

엘런은 올해 1~3월 사이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 실탄을 마련했고, 이를 5~10월 사이 시중에 투하한다. 문제는 다시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 **미국 중간 선거 끝나는 11월 3일부터 공간 채우기 시작**. 국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연말부터 시작되고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올해 연말은 금리 방향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공식 출처 검증 (TBAC 2026-05-05 회의록) — **TGA 7월말 \$1조 (±\$50B) 피크 예상**. 5월말 단기 CMB 발행. FY2026 잔여 충분, **FY2027~28 \$1.3조 자금 부족 전망**. 강사 시간선(7월말 피크 + 11월 공간 채우기 시작 + 연말 금리 방향 전환)이 공식 가이드와 정확 일치.

정석적으로는 3기 금리 반란의 시대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은 매우 스마트하다 — 특히 채권 시장. 시장이 미리 감지하기 시작하면 상반기·하반기 전환점부터 본격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올해 금융 시장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본 회차 3 메시지 ③번 '파월이 아니라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을 봐라'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정확한 예시다. 5~11월 살포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 보이지만, 그 다음에 공간을 채우는 발행이 본격화되면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 **재무부 공간의 차고 비는 흐름이 시장 금리 방향의 1차 결정 요소가 됐다**.

†3 TBAC 2026-05-05 TGA 7월말 \$1조 피크 + FY2027-28 \$1.3조 부족 treasury.gov

14. Part 4-4 예고 + 마무리

본 회차가 2기 거대한 착각의 시대를 해체했다면, **Part 4-4강은 3기 금리 반란의 시대 (2026~)를 본격 다룬다.** 마취제의 효능이 끝나고 — 부동산·주식·채권·테마주 모든 자산에 **실질 금리의 중력**이 걸리는 시대로의 전환을 정밀화한다.

Part 4를 통해 돈의 흐름을 전부 정리한 뒤 Part 5·6에서는 AI와 앞으로 나타날 투자 기회를 본격 다룰 예정이다.

강사 시점 권고는 명확하다 — 4 유형 자기 확인 (예금불패·피벗대기·연준맹신·원화고집)에 해당하는 사고 패턴을 확인하고, 파월 워딩이 아닌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을 보는 시각으로 전환하라. 재정 지배가 이미 시작된 세상이다.

재정 지배가 이미 시작됐다

Part 4-2강 금리 3기 분류 위에서, 본 회차는 2기 거대한 착각 시대 4층을 해체. 1·2·3층은 깨졌고 4층은 진행 중. 가장 큰 손실은 3층 — TLT/TMF/60-40의 1926년 이래 최악.

파월이 아니라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을 보라. 재정 지배가 이미 시작된 세상이다. 연준 목표 우선순위가 J커브 부채 > 물가 안정 > 고용으로 전도됐다.

4 유형 자기 확인 (예금불패·피벗대기·연준맹신·원화고집)에 해당된다면 본 강의가 더 유익하다 — 강사 결. 올해 연말은 금리 방향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파월이 아니라 재무부 국채 발행 일정을 보라. 재정 지배가 이미 시작된 세상이다.

Part 4-4강

3기 금리 반란의 시대 본격 진입

마취제의 효능이 끝나고 — 부동산·주식·채권·테마주 모든 자산에 실질 금리의 중력이 걸리는 시대로의 전환을 정밀화. 사모 신용 + 신용 시장 균열 (블루아울 정밀화).

{'title': '출처 및 면책', 'paragraphs': ['본 자료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4-3강 (2026-05-01)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의 핵심 논지와 관련 지표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N 외부 자료는 강의 메시지에 새로운 시각을 추가할 뿐 권고 항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지표 출처: federalreserve.gov · markets.financialcontent.com · morningstar.com · quantifiedstrategies.com · home.treasury.gov · mmgrea.com